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자기 근본을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 도리 주변에 알리고 싶은데

질문 제가 마음공부를 해 보니까 마음의 헐떡거림도 가라앉고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서 이 마음 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릴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지구가 돌아가든지 우주가 돌아가든지 그게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한 구멍에서 나오지 두 구멍도 아니에요. 천차만별로 용도가 다르지만 나오기는 한군데서 나온단 얘깁니다. 우리 쓰는 사람들이 용도가 이래야 되겠다 하면 그 용도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믿어라 하는 것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면 못 믿는 게 되니깐 그냥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깐 앨 쓰지 말고 아주 어렵게 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지금 신도들 가정은 괜찮은데 이 신도들 일가 되는 집들, 아무것도 모르는 집들, 이런 집에서 고장이 나서 모두 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미리미리 좀 관하는 거라도 가르치고 그랬다면 좀 뜻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머리가 참 둔해요.

내가 동생이 있으면 벌써 동생도 그럴 거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 권해 봐서, 권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권해 봐서 싫다고 그러면 고만두거든요. 다니진 않더라도 "이거라도 해." 이러고 가르쳐 주든지 말이에요. 말로라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천연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울 때도 알지 못하고 받는 거보다 좀 알면은 그냥 무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여기 스님네들이 안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하쇼." 이렇게 할 순 없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병원엘 가시려면 병원엘 가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맘대로 하세요. 이게 마음대로 돼야지, 마음에서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남이 시킨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남이 시켜선 안 되는 일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한 생각이 귀중합니다. 그렇게 내가 발 떼어 놓는 것이, 지금도 한 발 떼는데 그렇게 뭐, 한 발 떼고 두 발 떼는 게 먼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한 발을 떼고 두 발은 떼되 일은 한 발 뛰어서 천 리를 가서 할 수 있다. 그 요량을 지혜롭게 자꾸 알게 된다면 참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랬대요. 시험을 볼 텐데 시험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이다 하고선 시험을 보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너, 생각을 벌써 거기 들어가서 하면 늦어. 그러니깐 너는 딴 애들같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니깐 미리 그것을 모두 너의 머리에 이렇게 오게끔 다 이렇게 해 놔야 네가 붙지 않겠느냐. 그러니깐 너는 여기 있더라도 너 아닌 너 주인공을 미리 가게 해서 수습을 해 놓게 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 생각이 다 났겠소? 허허허.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러 줬대요. 자기 일은 다 잘되는데 그 아들 일은 그게 안 되니깐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아리송하지만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에 자는데 이렇게 길이 ㄷ 자로 이렇게, 엉망진창이던 길이 그냥 착 펴지더니 그냥 착 그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붙었다지 않습니까. 합격선에 충분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이 생각이 좁고, 생각이 좁으니깐 굴리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 그러니깐 "잘하쇼, 잘하쇼" 이럴 수밖에는 나는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저것들 어떻게 하나. 와짝 벗어나야 딴 사람들도 인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이 인연이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자연적으로 또 그 사람도 살게 되거든요. 벗게 되거든, 무명이 좀.

그러니까 모두 잘 살려면 둘 아니게 만나는 족족 그저, 싫다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아쉬우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잘되면은 "야, 네가 그때 얘기해 준 거 좋더라."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그게 아니라 임마, 바로 너야.' 이러고선 인제 그때 알게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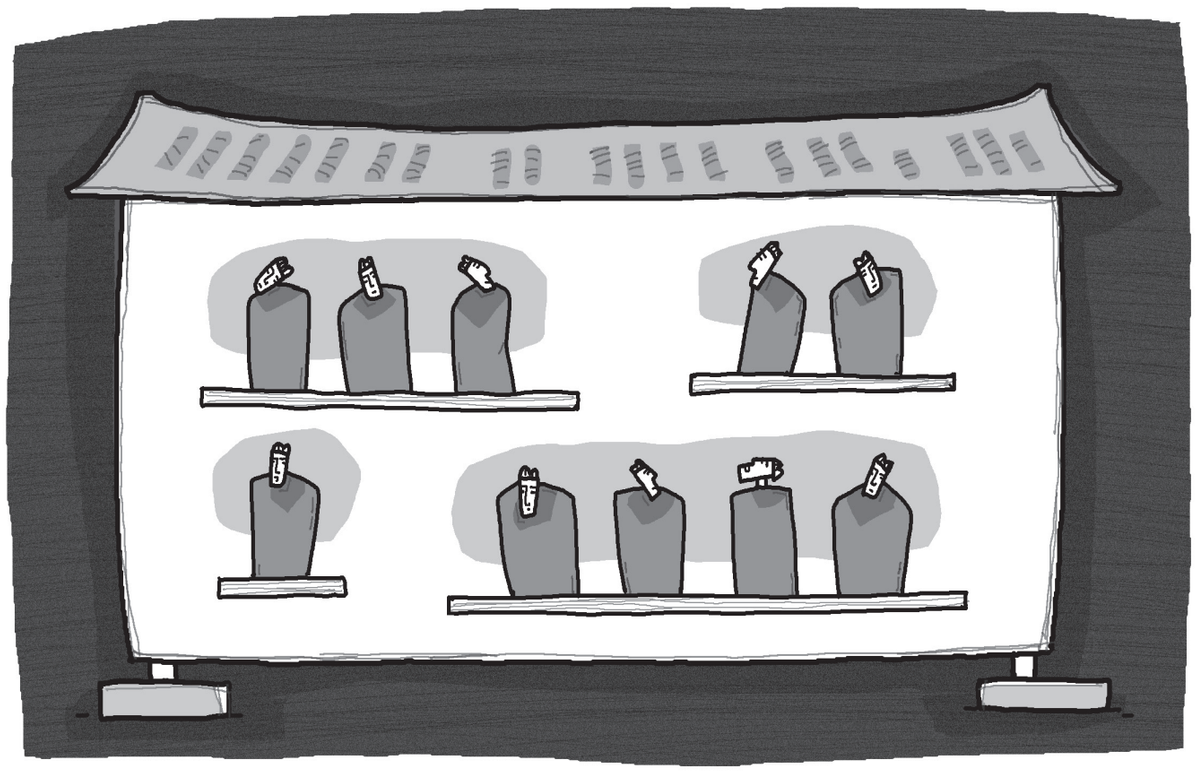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거니까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고, 또 자기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두 지혜롭게, 이렇게 둥글게 집안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들 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딸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요

질문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영 자기 고집만 부리고 저 잘되라고 몇 마디 하면 며칠씩 친구 집에 가 버리는 등 정말 자식의 마음을 맞춰 주는 게 힘에 부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답변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액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안고 옵니다. 그 안고 오는 고난 액난이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악이 술술 풀려나오고, 액이 술술 풀려 나오고, 병고가 술술 풀려 나오고 모두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업이 지어진 관계로 그렇게 풀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되맡겨 놔야만 되입력이 돼서 앞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나는 생각해 본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 뭘 가져왔다면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내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 때 광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작용을 할 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양면이 합쳐지면 전자와 전자가 없어지고 그 에너지광만 나오게 돼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없어지고 불만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에 성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좁게 보면 네가 하고 내가 했다 하겠지만, 넓게 본다면 네가 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